

CAF

Center for Ambitious Failure

KAISTian Story - 공모전 수상작

The Entitlement Trap through Hard Work

Intizar Tashov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내가 세웠던 완벽한 계획을 떠올리며 ‘왜 실패했을까’라는 질문을,
매사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임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어째서 실패했을까’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 정말 열심히 했어....’라는 문장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던 중,
어느 순간 아! 깨달음이 찾아왔다.
내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그것에 대해 극심한 패배감에 빠졌던
주된 이유는 바로 나에게는 어느 정도 ‘성공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었다.
열심히 노력했으므로 모든 일이 잘 풀려야만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었다.

몇 해 전 처음 들은 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속담이 있다. “운이 따를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라(Work hard until you get lucky)”라는 속담인데, 나의 지난 10년의 세월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속담은 없을 것이다. 12세의 나이에 부모님 곁을 떠나 학업을 위해 400마일 떨어진 수도로 이사했던 날, 인생의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지침이 되어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올바른 삶의 철학을 찾기 위한 나의 여정도 함께 시작되었다. 나는 역사 속 위인들과 본받을 만한 주변인으로부터 배움을 얻고자 했고, 더 넓은 세계관을 갖고 싶다는 마음에 지침이 되어줄 올바른 삶에 대한 태도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해보고, 피드백을 수렴하고, 다시 고민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렇지만 내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와 그것을 통해 얻게 될 경험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나의 멘토였던 분은 학생들에게 “실험을 하면 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난관에 부딪혔을 때 도움이 되어줄 삶의 철학을 찾기 위한 지난 10년에 걸친 나의 ‘실험’은 셀 수 없는 실패로 이어졌다. 그렇게 실패를 겪을 때마다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나에겐 많은 단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나로 하여금 목표 달성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로 인한 실패에 대응하기 어렵게 했던 마음가짐이 있다. 나는 이것을 노력으로 인한 자격 의식의 함정(Entitlement trap through hard work), 줄여서 ‘노력의 함정’이라 부른다. 이 노력의 함정에 대해 주변의 멘토 및 친구들과 오랜 대화를 나눈 끝에, 이것이 비단 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런 연유로, 이 에세이를 통해 내 인생의 두 가지 큰 실패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자 한다. 두 가지 실패 모두 공교롭게도 이곳 KAIST에서 겪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앞서 공유했던 멘토의 이야기처럼 KAIST에서 내 인생 그 어떤 순간보다 많은 실험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KAIST에서 내게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KAIST에서 보냈던 첫 학기, 나는 시간 대부분을 교양 과목 수강과 사교 활동에 할애했다. 물론 교양 과목 공부와 학우들과의 어울림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가슴속 한 켠에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게 하는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이 KAIST 입학 전까지 5년간 내가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입생 신분은 여러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이 있었다. 학교 포털 시스템이나 이메일을 통해 공고되는 대부분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최소 2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회를 잡기 위해 도전했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수십 번의 불합격을 맞보고 나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다. 그러나 수년간 국제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성공의 비결은 긍정적인 태도와 열린 자세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던 나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중간고사 기간이던 어느 날 저녁, 베트남 학우들과의 축구 시합이 끝난 후 가깝게 지내던 펄만 선배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커피나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실에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나는 기꺼이 그 제안에 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였지만 연구실 생활에 대해, 그리고 연구실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꼭 알고 싶었다. 그러나 당시 나와 펄만 선배는 그날 밤의 일이 내 KAIST 생활을 180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몇 시간에 걸친 대화 후, 나는 선배에게 지난 몇 주간 꼭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신입생 신분으로도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냐고 가볍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놀랍게도 펄만 선배는 내 질문을 꽤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의 담당 교수님께 직접 이메일을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리고 자신이 그 이메일을 한번 봐주겠다고 제안했다. 모든 것이 그저 가능성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흥분감을 감출 수 없었다. 펄만 선배는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당시 자신의 제안을 들은 나의 눈이 슈렉에 나오는 장화 신은 고양이처럼 둥그렇게 커졌었다며 웃곤 한다.

선배의 도움을 받아 연구실 인턴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잔뜩 들떠 펄만 선배의 연구실을 나온 나는 밤새도록 펄만 선배의 지도 교수님인 케이퍼 교수님(Prof. Cafer)의 웹사이트와 논문을 살펴보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드레날린의 분출을 느낄 수 있었다. 일주일 동안 펄만 선배와 의논하고 케이퍼 교수님의 논문을 읽은 뒤 마침내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다. 며칠 동안 답신은 오지 않았다. 초조했지만 그런 종류의 기다림에는 이미 익숙해진 터라 견딜 수 있었다. 그로부터 다시 며칠이 지난 후, 정말 놀랍게도 케이퍼 교수님으로부터 연구실 인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잔뜩 들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면접을 준비했지만, 교수님이 던지신 질문에 거의 답변하지 못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기대가 높았던 것도 있지만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면접 준비를 해왔던 탓에 실망감은 더욱 컸다. 공부에 소홀하고 낮은 성적을 받을 것을 감수하며 면접 준비를 한 것은 매우 큰 리스크였던 것이다.

운이 좋게도, 내 열정을 좋게 보신 교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셨다.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에 학기 중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면접 일자를 겨울 방학으로 미뤄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렇게 한 달 내내 관련 논문을 읽으며 면접 준비에 임했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다행히도 지난번보다 훨씬 자신 있게 교수님이 던지신 질문에 대부분 대답할 수 있었고, 연구실 인턴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내 인생 첫 연구실 인턴십을 KAIST에서의 첫 학기를 끝내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뻐던 나는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자고 다짐했다. 첫 번째 인턴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펄만 선배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다.

처음 몇 달간은 교과서와 논문을 읽으며 보냈다. 또한 연구실에 있는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로부터 기본 개념을 배우고, 배운 이론을 즉시 실험하며 실증해볼 수도 있었다. 제3세계 국가 출신인 나로서는 이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 배우고 나면 연구실로 달려와 직접 실험해보며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보는 나날들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항상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꿈꿔왔던 그런 종류의 모험이었다. 기본 개념에 익숙해진 이후에는 펄만 선배가 이끄는 프로젝트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두 명의 박사 후 연구원과 한 명의 석사 과정생과 함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하루 평균 5~6시간 정도를 연구실에서 보내는 나날들이 계속되자, 팀원들이 나의 실력을 점차 신뢰하기 시작했다. 어깨 너머로 다른 이의 과제를 관찰하거나 지원하는 역할 이상의 진짜 임무가 주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프로젝트의 상당한 부분을 직접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펄만 선배가 4학기 도중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KAIST를 중퇴하기로 했다. 교수님과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이끌 후임 리더를 논의할 때, 나는 프로젝트 리더를 맡겠다고 자원했다. 그간 프로젝트의 일부분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췄다는 것은 증명해 보였지만, 그것만으로 프로젝트 전체를 이끌 수 있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인턴인 내가 박사후 연구원 두 분과 석사 과정생 한 분으로 구성된 꽤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다.

당시 교수님께서서는 이 프로젝트가 꽤 크고 흥미롭기는 하지만 프로젝트 결과가 교수님의 연구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나는 자유롭게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수 있게 되었다. 리더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교수님을 비롯하여 다른 팀원들과 끊임없이 상의하며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최종 결정은 리더인 나의 몫이었고,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에는 결코 익숙해질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 다행히도 몇 주가 지나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프로젝트는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몇 가지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고 난 후,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게다가 당시 나는 학업은 제쳐 두고 가용 시간의 거의 전부를 프로젝트에 할애하고 있었다. 애초에 내가 갖고 있던 계획은 학부 시절 논문을 발표하고,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MIT, 스탠퍼드, 케임브리지, 컬럼비아, 시카고 대학 등 세계 10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지난 2년간 KAIST에서의 생활을 돌이켜보니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 사실이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난 몇 학기간 성적은 4.3 만점에 3.72에서 점점 낮아져 3.03까지 떨어져 있었다. 프로젝트 리더직은 거의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는 전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교수님께서서는 이미 프로젝트 취소 가능성에 대해 몇 번이나 언급하셨다. 어떻게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둘 수 있었던 말인가!

내 머릿속은 '왜, 그리고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에서 파생된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얼마 동안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과 함께 지내는 동안 학업과 프로젝트 모두 엉망진창이 되어갔고, 나에게는 번아웃이 찾아왔다.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에 희망을 잃은 채 온종일 누워서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식욕도 없었으며 운동도 그만둔 지 오래였다. 내 일상엔 천천히, 그러나 빠르게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게 남은 것은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뿐이었다.

내가 세웠던 완벽한 계획을 떠올리며 '왜 실패했을까'라는 질문을, 매사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임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어째서 실패했을까'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 정말 열심히 했어....'라는 문장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던 중, 어느 순간 아! 깨달음이 찾아왔다. 내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그것에 대해 극심한 패배감에 빠졌던 주된 이유는 바로 나에게는 어느 정도 '성공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다. 열심히 노력했으므로 모든 일이 잘 풀려야만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니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은 나머지, 떨어지는 성적과 길을 잃은 프로젝트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지경까지 갔던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굳은 의지로 더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일이 마법처럼 잘 풀릴 것이라 생각했었다.

내 이런 잘못된 생각에 대한 깨달음은 마치 하늘의 계시처럼 느껴졌고, 이후 며칠 간 그것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깨달음만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는 없었다. 당시 내가 겪은 실패의 경험은 한 학기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게 트라우마 같은 흔적을 남겼던 것 같다.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성적이었지만 형편없는 성적이 한 번 더 추가되었으며, 프로젝트도 거의 취소 일보 직전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겪을 것이라 예상했던 이른바 ‘멘탈 붕괴’는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내 앞에 멀고도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임하되, 내 노력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갖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 여름 학기 내내 학업과 프로젝트, 그리고 인생 전반에 대한 나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며 보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여러 교훈 중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훈을 하나만 꼽으라면, “노력에 대한 자격 의식을 갖지 말고 운이 따를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라”일 것이다.

이 교훈은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 나로 하여금 겸손하고 열린 자세를 갖게 해주는 한편, 매사 끈기와 노력으로 임하도록 도와주었다. 그 결과 나는 두 학기 연속으로 우수한 성적을 다시 회복했고,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고, 시카고 대학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자격 의식(Feeling of entitlement)이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뇌는 머릿속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고, 우리는 마치 유토피아와도 같은 그 가상의 버블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버블을 터트리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심지어 말살하려고 한다. 나는 때때로 이러한 자격 의식과 내 머릿속 희망 회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곤 한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다행히도 이제는 그러한 자격 의식과 희망적 사고를 지양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앞으로도 어떤 일에 대해 자격 의식을 갖거나 막연한 희망을 품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조짐을 지금보다 더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할 자격이 있다는 특권 의식은 모두가 주의해야 할 함정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자격 의식과 희망적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내면의 메커니즘을 구축해 두어야 할 것이다. 나의 경우는, 잘못된 자격 의식이 곧 지옥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곱씹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은 다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 내가 깨달은 노력의 함정에 대해 친구 및 멘토들과 함께 이야기해본 결과, 많은 이들이 저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종종, 신입생 시절 누군가가 나에게 자격 의식의 함정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참 좋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노력했으니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자격 의식이 어떻게 멋진 계획을 망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다. 만약 그런 연구가 진행된다면 나 뿐 아니라 다른 카이스트 학우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